

# SK하이닉스, HBM4E 12단 샘플 공급... “적기 양산 만전”

HBM 제품 ‘고객 맞춤형’ 차별화 양산 목표시점은 공개하지 않아 안현 사장 “기술 리더십 공고히”



SK하이닉스 HBM4E.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 출하 시점을 다루던 HBM 경쟁이 HBM4E를 기점으로 고객 요구에 맞춘 맞춤형(커스텀) 승부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18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인공지능(AI)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축적해온 HBM 선형 개발 역량과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HBM4E 12단 샘플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며 “핵심 고객사와 긴밀히 협업해 적기 양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HBM4E 샘플을 올해 하반기

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시 언급은 전망 수준이었으며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점에 샘플 공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산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HBM4E는 고객 맞춤형 제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는 HBM4E가 커스텀 제품인 만큼 고객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HBM4E와 HBM5를 고객 요구에 맞춘 커스텀 HBM 중심 세대로 분류했다.

이번 제품은 전작인 HBM4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였다. 핀당 최대 16Gbps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했고 에너지 효율은 20% 이상 개선했다. 칩을 적층한 뒤 칩 사이 공간에 액체 형태의 보호재를 주입해 굳히는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을 적용해 12단 적층 기준 48GB 용량을 구현했다. 열 저항은 HBM4 대비 약 17% 낮춰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안정성을 높였다.

커스텀 HBM 경쟁에서는 코어 다이와 베이스 다이를 어떤 공정으로 구성하느냐가 변수로 꼽힌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HBM4E 코어다이에 HBM4(1b)보다 진전된 1c D램 공정을 적용하고, 베이스 다이는 TSMC 3나노 공정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도 TSMC에 HBM4E 베이스 다이 생산을 맡겨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D램 공정을 유지하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 수요는

2026년 전년 대비 77%, 2027년에는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HBM4E는 2027년 전체 HBM 수요의 약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업계 최초로 HBM4E 12단 샘플 출하를 발표했다. HBM4E와 HBM5가 커스텀 HBM 중심 세대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쟁은 고객 요구를 반영한 설계와 성능 검증, 안정적인 공급 역량 확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그동안 쌓아온 업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과 양산 역량을 HBM4E 제품에서도 이어가 AI 혁신을 지속적으로 리드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파트너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를 선제적으로 구현해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



삼성전자 모델들이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A37 5G'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 삼성전자 ‘갤럭시 A37 5G’ 출시

삼성전자가 대용량 배터리와 AI 기능, 대화면을 갖춘 보급형 스마트폰을 국내 출시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적용하면 체감 가격은 40만원대로 내려간다.

17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A37 5G'를 오는 19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고가 59만8400원이다. 색상은 어썸 라벤다·어썸 화이트·어썸 차콜 3종으로 출시되며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A37 5G’는 어썸 인텔리전스 AI 기능과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일상속사 용성을 강화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AI와 모바일 혁신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넥스트라이즈 2026

### 대한항공 3대 미래 항공기술 선봬

대한항공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넥스트라이즈 2026에 참가해 벤처·중소기업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래 도심항공교통의 핵심인 지능형 관제, 미래 전투체계 기반인 자율형 조종, 스마트 MRO 등 3대 미래 항공 기술을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관람객들이 미래 항공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ACROSS 관제 영상을 구현한 LED 타워와 실제 장비를 전시한다. 부스 방문객을 위한 대한항공 키링 제작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포스코인터, ‘PT.PAR’ 출범... 글로벌 식량사업 박차

삼푸르나 아그로 인수 후 통합 완료 CI 공개... 팜 사업 영업익 2배 목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팜 사업 재편을 마무리하고 식량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인수한 삼푸르나 아그로를 PT.PAR(Prime Agri Resources)로 새롭게 출범시키며 종자 개발부터 농장 운영, 정제사업까지 이어지는 팜 밸류체인을 강화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래플스 호텔에서 PT.PAR 신규 기업 아이덴티티(CI)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PT.PAR의 신규 CI는 팜나무를 형상화한 심볼과 연결된 곡선 디자인을 활용했다.

PT.PAR은 지난해 경영권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팜 기업 삼푸르나 아그로의 새 사명이다. 올해 1월 현지 법적 절차를 마치고 공식 사명을 확정된 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인수 후 통합(PMI) 완료와 새 출발을 알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PT.PAR 출범을



이제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뒷줄 왼쪽 8번째부터)과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 에디 마르토노(Eddy Martono) 팜오일협회 회장 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PT.PAR CI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통해 팜 사업의 지역과 기능을 동시에 넓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삼푸르나 아그로 경영권을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일대 12만8000헥타르(ha) 규모의 팜 농장과 종자 전문 자회사, 연구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PT.PAR은 앞으로 수마트라-칼리만탄 지역 농장 운영과 종자 사업을 담당한다. 기존 파푸아 지역 팜 농장을 운영해온 P.T.BIA(2만6000헥타르)가 생산 기반을

말아왔다면 PT.PAR은 여기에 종자 개발과 대규모 농장 운영 역량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제 부문은 GS칼텍스와 공동 설립한 PT.ARC가 맡는다. PT.ARC는 연간 50만톤 규모의 팜유 정제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생산된 팜유를 정제유와 바이오연료 원료 등으로 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보유한 팜 농장 면적은 총 15만4000헥타르다. 서울시 면적의 약 2.5배에 해당하

/원관희 기자 wkh@

# 박용인 삼성전자 사장 “시스템LSI 사업, 연간 적자 불가피”

1분기 역대최고 수준 매출 달성 “SoC 사업 등 수익성 개선 최선”



시스템칩(SoC) 등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부문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의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2조~3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사장은 “대형 고객사 센서 수주, 맞춤형(커스텀) SoC 사업 추진 등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사진)이 올해 시스템LSI 사업의 연간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박 사장은 18일 열린 시스템LSI 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임직원들에게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을 설명하며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시장 변화와 수요 위축으로 연간 기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스템LSI 사업부는 이미지센서와 시

이어 “경영진은 미래 성장 기반 확보와 함께 사업 체질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SoC 사업은 단기 내 흑자전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사업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사장은 “엑시노스 2700은 플래그십 모델 탑재를 목표로 차질 없이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비지상 네트워크(NTN)를 포함한 차세대 무선통신기술(CP)이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앞서 시스템LSI 사업부는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 S26 시리즈에 공급하며 성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후속 제품인 엑시노스 2700은 내년 초 출사가 예상되는 갤럭시 S27 시리즈 탑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스템LSI 사업부는 향후 모바일 중심의 이미지센서 사업을 넘어 다양한 응용처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DDI·PMIC 등 시스템반도체 사업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장은 “구조적 문제는 경영진이 해결하고 구성원들이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 재무적자가 아닌 전략적 성과의 가치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공동부스 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넥스트라이즈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관을 21개 협력사와 공동 부스로 구성했다.

주요 전시 품목은 K9 자주포 조종수 계기판, 차량 주변 360도 영상을 제공하는 영상장치, 천무 유도탄의 항재밍 위성항법 장치, 발사대용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오픈이노베이션관도 운영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무기, 유도무기, 항공 분야 등 총 12개 과제에 참여할 중소협력사와 벤처·스타트업들을 현장에서 발굴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